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정보격차요인을 중심으로*

성 경 옥[†]
(사)한국EAP협회

강 혜 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중요한 직업정보인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개인 간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다양한 요인들(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경력단절여성 375명으로, 여성취업지원관련 기관 11곳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직업정보인지도와 정보격차요인 측정을 위해 정보격차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한 질문지로,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 문항내적합치도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보격차요인이 직업정보인지를 설명하는 양은 30.3%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33.500, p<.001$). 개별 정보격차요인의 영향력은 인터넷 정보능력($\beta=.309, p<.001$)이 직업정보인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정보처리전략($\beta=.179, p<.01$), 정보추구욕구($\beta=.146, p<.01$), 제도적 네트워크($\beta=.102, p<.05$)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네트워크는 직업정보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소득, 경력기간,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와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경력단절여성 간 직업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경력단절여성, 정보격차요인, 직업정보인지도

* 본 연구는 성경옥(2013)의 석사학위논문 자료의 일부를 재분석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힘.

[†] 교신저자 : 성경옥, (사)한국EAP협회, (04551) 서울시 중구 수표로 45, 810호

Tel : 02-2171-1729, E-mail : brightwhite@daum.net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국가 경제발전의 중요과제로 부각되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력단절여성의 약 64.6%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여성가족부, 2010). 그런데 한국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인 61.8%보다 6.9%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12 Employment Outlook).

이러한 경력단절여성들의 높은 재취업욕구에 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을 위한 지원으로 직업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9; 장서영, 은혜경, 오민홍, 2009; 장서영, 은혜경, 최미정, 2009).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조사와 교육훈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중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가 직업정보 부족으로 나타난다. 취업지원교육에 참여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정보, 즉 직무내용, 요구되는 능력 및 기술, 진입방법, 관련 직업훈련기관, 취업유망직종 등 각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장서영, 2008a).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탐험 경험분석 연구에서도 구직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로가 부족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직업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며, 자신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러한 상황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윤혜경, 2008).

경력단절여성들의 높은 직업정보 요구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직업을 탐색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할 수 있는 직종도 제한되어 있어 직업전환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다양한 직업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장서영 외, 2009).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여성 실직자들이 겪는 진로장벽 요인 중 하나가 직업정보 부족인 것이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 부족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직업상담이나 직업교육을 통해 직업정보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진행된 직업정보인지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학생이나 실직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곽혜정, 2011; 박선희, 2004; 박정주, 2010; Haase, Reed, Winer, & Bodden, 1979),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정보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직업정보인지도 관련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직업정보 매체 및 정보 전달방식에 따른 직업정보인지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있다(김소영, 2007; 박선희, 2004; 박정주, 2010; 오승석,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구직자가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구직행동을 함에 있어 필수적인 직업정보인지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능동적으로 직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구직자가 구직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취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므로 직업정보인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직업과 관련된 정보나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곽혜정, 2011). 황여정(2007)은 진로결정 및 진

로 정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동안의 연구들이 특정 변인에만 집중하여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종합적인 논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거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정보인지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요인들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 직업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은 다양한 편차를 지닌다(Breaugh & Mann, 1984). 구직자들은 취업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제한적인 정보만 알 수 있을 뿐이어서(Stigler, 1961), 개개인의 직업정보에 대한 인지수준은 편차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정보격차(information gap)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 1970년대부터 정보격차이론(information gap theory)을 토대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주제이다. 정보격차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인 정보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고 정보 활용능력도 우수한 집단과 그러하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등적 특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고삼석, 2011).

이러한 정보격차를 발생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정보를 취득하려는 동기(박정은, 1997; Atkin, Galloway, & Nayman, 1976; Lovrich & Pierce, 1984), 정보를 처리하는 전략(심재철, 정윤식, 유종원, 이의정, 권혁남, 박성연, 박응서, 1998; Fredin, Monnett, & Kosicki, 1994; Kosicki, McLeod, & Amor, 1988)이 정보격차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접촉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도 정보격차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이경상, 2001; Galloway, 1977). 정보화시대에 정보의 관문인 인터넷 정보능력(information literacy) 또한 정보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규명되었다(이동우, 2002).

정보화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격차 요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력단절여성 간의 직업 정보격차를 유발할 것이며,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격차 요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월가계소득) 및 취업배경 변인(총경력기간, 경력단절기간,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직업정보인지도

개념 및 선행연구

직업정보인지도란 직업정보에 대한 인지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업정보에 대한 정의는 직업정보의 범위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직업정보의 범위는 인간의 직업발달 단계에 따라 제공되는 방대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반면, 직업 자체가 갖는 특성에만 치중하는 내용도 있어 질적·양적으로 매우 다양하다(김병숙, 2007). Hoppock(1976)는 직업정보를 직위, 직무, 과업 등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며, Norris(1979)는 채용자격, 작업조건, 보상 등을 포함한 직업, 직무, 직위 등에 관한 자료라고 정의한다.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에서는 근로

자 관련 정보, 업무관련 정보, 노동시장 관련 정보로 나누어, 직무중심의 직업정보뿐만 아니라 직무수행과 관련된 근로자 속성에 관한 정보, 임금이나 일자리 전망과 같은 노동시장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박가열, 2003).

직업정보에 대한 정의가 직업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상이하듯,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개념 또한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김병숙과 전종남(2004)은 직업정보인지를 직업종류 인지 정도와 직업지식 수준으로 보았고, 박선희(2004)는 직업정보 필요 정도와 직업정보 인식 수준으로 보았다. 박정주(2010)와 곽혜정(2011)은 업무내용, 전망, 보수에 대한 인지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정보가 각 직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즉 직무내용, 요구되는 능력 및 기술, 진입방법, 관련 직업훈련기관, 취업유망직종 등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요구된다는 연구결과(장서영, 2008a)를 토대로 직무정보를 비롯하여 자격요건, 근로조건, 노동시장 정보와 같은 직업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직업정보인지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해외 연구들은 주로 직업정보의 제공이 인지처리 양식(cognitive processing style)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Remenyi와 Fraser(1977)는 직업정보제공이 직업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Bodden(1970)은 직업인지복잡성 변수가 직업선택의 적절성 요인과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학생과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중단분석, 인구통계학 특성이나 직업정보매체 또는 직업정보 전달방식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선희, 2004; 박정

주, 2010, 오승석, 2014). 황여정(2007)은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동안의 특정 변인에만 집중함으로써 종합적인 논의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거론하며, 개인 특성, 가정 및 학교 관련 변인들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직업정보인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수적으로 풍부하지 않으며, 경력단절여성들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관련 연구들이 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나 직업정보 매체 및 전달방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정도여서, 직업정보인지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정보인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에 있어 정보격차이론(information gap theory)과 정보격차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격차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직업정보인지도의 개인차: 정보격차이론

현실적으로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필요한 완전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Simon(1978, 1982)은 이러한 제약적 상황에서의 합리적 행위를 정보인지의 불완전성에 바탕을 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고 표현한다. 구직자들은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며,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개인의 노력이나 시간, 비용과 같은 제약을 받고, 나아가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개인의 능력 측면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정보

인지 수준은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개인의 편차는 정보격차이론(information gap theory)과 관련지어 볼 때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정보격차이론은 한 사회체계 내에서 정보흐름이 증가하면 정보부자(the information-rich)와 정보빈자(the information-poor)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Tichenor, Donohue, & Olien, 1970). 정보격차는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 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으로, 정보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가치 있는 정보를 더 많이 소유하고 이러한 정보의 활용능력도 우수한 집단과 그러하지 못한 집단 사이에 격차가 있는데, 정보격차란 이러한 일련의 차등적 특징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고삼석, 2011). 정보격차는 정보 사회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직업정보빈자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가 낮아, 직업훈련이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격차요인이 직업정보인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직업정보인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부자와 정보빈자 간의 집단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직업정보인지도의 개인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복잡성과 직업선택과의 관계,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업정보인지도의 차이, 직업매체에 따른 직업정보 활용도의 차이, 직업정보 전달방식에 따른 직업정보인지도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Bodden(1970)은 인지복잡성이 큰 사람은 인지복잡성이 작은 사람에 비해 직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분별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과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병숙과 전종남(2004)은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직업종류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집단의 직업종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선희(2004)는 실업자의 인구특성변인에 따른 직업정보인지도의 차이를 밝혔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직업종류와 전망에 대한 직업정보 지식수준이 높았고, 고학력일수록 희망직업에 대한 직업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정보매체별로 직업정보 활용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쇄매체보다는 인터넷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주(2010)는 대학생의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 추이와 개인차를 검증하였는데, 직업정보인지도의 개인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직업정보인지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주로 직업정보인지도의 개인차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구특성변인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나, 진로상담 프로그램 또는 직업정보매체와 같은 도구적 요인에 따른 직업정보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정보격차 이론에서 거론되는 정보격차 발생 요인들은 매우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 선행연구에서 개인 간 정보격차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중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 요인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

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보격차 요인

정보추구욕구

정보추구욕구와 관련하여 정보에 대한 동기화 정도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개인의 정보격차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Lovrich & Pierce, 1984). Atkin 등(1976)은 정보추구과정(information seeking process)과 관련하여 동기화 정도에 따른 개인의 정보수준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들은 정보추구 동기를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는 '환경감시적 욕구', '안내적 욕구', '수행적 욕구', 그리고 '강화적 욕구' 네 가지 차원으로 보았다. 환경감시적 욕구는 개인이 환경 적응을 위해 주변 사건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하며, 안내적 정보욕구는 태도를 형성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지침이 될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수행적 정보욕구는 특정 행위의 달성을 위해 지침이 될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것, 강화적 정보욕구는 개인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보강하고자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박정은(1997)은 Atkin 등(1976)이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의 욕구 따라 측정된 정보추구 동기가 개인의 지식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보추구욕구가 직업정보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보처리전략

정보처리전략(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은

정보이용자들이 수많은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선택하거나 수집하는 인지활동이다(Kosicki et al., 1988; Shim, 1997). Kosicki 등(1988)은 정보이용자가 어떻게 뉴스를 처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들은 세 가지 차원의 정보처리전략을 발견했는데 '피상적 검색(selective scanning)', '능동적 정보처리(active processing)', '숙고에 의한 통합(reflective integration)' 이 그것이다. 피상적 검색은 제한된 시간에 수많은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가 습관적으로 눈에 띄는 내용만을 건성으로 대충 읽는 정보처리 방법을 의미한다. 능동적 정보 처리는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찾아 읽으며, 정보를 접할 때 그 정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정독하는 등 인지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보처리 방법을 의미한다. 숙고에 의한 통합은 정보를 접한 뒤 그 의미에 대해 재고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보다 자세히 알아내는 정보처리 방법을 뜻한다(심재철 외, 1998). Kosicki 등(1988)은 이러한 정보처리전략에 따라 지식습득 및 정보 보유량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밝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보처리전략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구직자는 자신이 맺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통해서 취업정보를 습득하며, 취업정보를 획득하는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취업정보인지는 제약을 받게 된다(이경상, 2001).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업과 관련된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 중요한 역

활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윤혜경, 2008; 장서영, 2008b). Lee와 Brinton(1996)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제도적 사회자본과 개인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제도적 사회자본은 공식적인 연결망(formal network)에 기반을 둔 자본을 뜻하며, 개인적 사회자본은 비공식적인 개인적 관계망(informal personal contact network)에 기반을 둔 자본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도적 네트워크'와 '개인적 네트워크'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종향, 2011).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네트워크와 제도적 네트워크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넷 정보능력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로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직업정보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DISCOVER, SIGI PLUS와 같은 CACG(Computer Assisted Career Guidance System)가 진로상담 및 직업지도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이효남, 2002; Hasan & Huseyin, 2010). Osborn과 LoFrisco(2012)는 Facebook, LinkedIn, Twitter와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대학경력센터와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지도와 진로정보탐색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임은미, 장선숙, 2004). 서진완(2000)은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개개인의 능력을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로 정의하면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나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된 정

보를 평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개인특성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잘 활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있어 정보격차를 보이고 있음이 보고되었다(정숙경, 2003).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인터넷 정보능력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 중요한 직업정보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연령, 학력, 월가계소득)과 취업배경 변인(총경력기간, 경력단절기간,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정보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요인이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소재한 여성취업지원 관련 기관(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빈도 (N=375)	백분율 (%)
연령	20대	6.1
	30대	21.1
	40대	48.3
	50대	22.4
	60대	2.1
학력	중졸이하	4.5
	고졸	26.7
	전문대졸	17.6
	대졸	44.8
	대학원졸	6.4
월가계소득	100만원 미만	9.6
	100-300만원	34.9
	300-500만원	39.2
	500-700만원	11.2
	700만원 이상	5.1
총경력기간	1년 미만	9.6
	1-5년	33.6
	5-10년	28.3
	10-15년	22.9
	15년 이상	5.6
경력단절기간	1년 미만	31.7
	1-5년 미만	22.4
	5-10년 미만	18.4
	10-15년 미만	13.6
	15년 이상	13.9
취업준비기간	3개월 미만	38.1
	3-6개월 미만	21.3
	6개월-1년 미만	24.3
	1-2년 미만	8.5
	2년 이상	7.7

발센터, 고용지원센터) 11곳에 취업할 의사를 가지고 방문한 경력단절여성 37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40대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2.4% 30대 21.1%, 20대 6.1%, 60대 2.1%로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졸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26.7%, 전문대졸 17.6%, 대학원졸 6.4%, 중졸이하 4.5%로 순으로 나타났다. 월가계소득은 300만원-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9.2%로 가장 많았고, 100-300만원, 500-700만원, 100만원미만, 700만원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총경력기간은 1-5년 미만이 33.6%로 가장 많았고, 5-10년, 10-15년, 1년 미만, 15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기간은 1년 미만이 31.7%로 가장 많았고, 1년-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5년 이상, 10-15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기간은 3개월 미만이 38.1%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 3-6개월 미만, 1-2년 미만, 2년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측정도구

직업정보인지도

직업정보인지도란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된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직업정보 습득 수준을 의미한다. 직업정보인지도 측정은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제작하였다. 먼저, 직업정보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문항을 추출하였고 전문가 그룹에 의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2명, 국내 대학 상담교수 2명, 고용노동부 상담원 1

명, 연구소 및 민간기관 직업상담사 2명으로, 총 7명이다. 학위는 박사 4명, 박사수료 2명, 박사과정 1명이며, 전문가 그룹의 관련 경력 기간은 평균 9.6년이다. 직업정보인지도는 노동시장 정보, 자격요건 정보, 기업 근로조건 정보, 직무관련 정보,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문항으로 노동시장 정보 8 문항, 자격요건 정보 6문항, 기업 근로조건 정보 4문항, 직무관련 정보 3문항으로 측정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정보인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직업정보인지도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79에서 .89로 사이로 나타났다.

정보추구욕구

정보추구욕구는 인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정보추구욕구는 Atkin 등(1976)의 정보추구욕구 정의와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한 박정은(1997)의 측정도구 8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원척도가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상황 전개에 추이에 자세한 관심을 갖는다'는 문항의 경우, '사건'이라는 용어를 '직업이나 구직'으로 수정하여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된 상황 전개에 자세한 관심을 갖는다'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추구욕구 하위 구성개념에 따라 환경감시적 욕구(예: "나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안내적 욕구(예: "나는 직업 선택이나 구직에 참고할 만한 다른 사람의 사례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자 한다."), 수행적 욕구(예: "나는 성공적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다양한 자료를 얻고자 한다."), 강화적 욕구(예: "나는 선택한 직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추구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전략

정보처리전략은 다양한 종류의 정보들을 수용함에 있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채택하는 인지전략을 의미한다. 정보처리전략은 Kosicki 등(1988)이 개발한 설문 문항을 사용한 심재철 등(1998)의 측정도구 10문항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직업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나는 흥미로운 기사를 보면 그 추이를 주목 한다'라는 문항의 경우, 직업에 대한 용어로 수정하여 '나는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추이를 계속해서 주목 한다'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정보처리전략의 하위 구성개념에 따라 피상적 검색(예: "나는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된 정보는 나와 상관이 없어도 거의 모두 읽는다."), 능동적 정보처리(예: "나는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재해석한다."), 숙고에 의한 통합(예: "나는 직업이나 구직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시간이 흐른 후에도 다시 곰곰이 생각한다.")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처리전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피상적 검색은 역채점 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 습득에 있어 개인적, 제도적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경력단절여성 관련 연구(김중향, 2011; 장지현, 김민영, 장원섭, 2010)에서 사용된 사회적 관계망 유형 문항과 구직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하고, 5점 척도로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을 개인적 관계망과 제도적 관계망으로 구분한 연구(김중향, 2011)의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제도적 네트워크'와 '개인적 네트워크'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네트워크(가족 및 친척, 친구 및 선후배, 교사 및 교수, 전 일자리 지인, 희망 일자리 지인, 기타 지인) 6 문항, 제도적 네트워크(공공취업지원기관 직원, 민간취업지원기관 직원, 민간직업훈련기관 직원, 여성사회교육기관 직원) 4문항으로, 총 10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네트워크 활용이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 네트워크의 Cronbach's α 는 .81로, 제도적 네트워크의 Cronbach's α 는 .74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보능력

인터넷 정보능력(internet information literacy)은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집능력(IT이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의미한다. 인터넷 정보능력은 서진완(2000)이 개발한 12문항 중 7문항을 골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직업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원척도가 '나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문항을 '나는 직

업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로 수정하였다. 인터넷 정보능력은 '정보수집능력(IT이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수집능력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와 같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과 조작능력을 측정하는 2문항과, 문제인식, 정보탐색, 정보평가, 정보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해결능력 5문항으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정보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정보능력의 Cronbach's α 는 .94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월가계소득 3개의 항목으로, 취업배경 변인은 총경력기간, 경력단절기간, 취업준비기간 3개의 항목으로,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표본의 특성을 알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실시하고,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보격차 요인들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0.7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으로, 검증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은 주성분 추출방법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은 직교회전 방식 중의 하나인 Varimax 회전을 수행하였다. 요인분석 시 다른 요인에 적재되거나 요인 적재량이 0.5미만인 항목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내적일관성을 검증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직무관련 정보, 자격요건 정보, 기업 근로조건 정보, 노동시장 정보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4개의 요인 모두 Cronbach's α 값이 0.7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정보격차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인터넷 정보능력,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개인적 네트워크, 제도적 네트워크 5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적 네트워크와 제도적 네트워크로 구분되어 추출됨에 따라 정보격차요인을 5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타당성을 저해하는 정보처리전략 2개 문항은 제외되었다. 5개의 요인 모두 Cronbach's α 값이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정보추구욕구는 정보처리전략과 .61의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정보처리전략은 자격요건과 .43의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개인적 네트워크는 제도적 네트워크와 .38, 제도적 네트워크는 노동시장 정보와 .27의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인터넷 정보능력은 노동시장 정보와 .51, 직무관련 정보는 자격요건 정보와 .63, 자격요건 정보는 노동시장 정보와 .65, 기업근로조건 정보는 노동시장 정보와 .63의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모든 상관관계에 있어 가장 높은 값이 .65를 초과하지 않아 상호관련성이 높을 때 발생하는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1. 정보격차요인이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개인적 네트워크, 제도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이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보격차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직업정보인지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모형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보격차요인들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33.500, p<.001$). 그리고 정보격차요인의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설명량은 30.3%로 나타

표 2.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설문문항	성분			
		1	2	3	4
노동시장 정보	취업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795			
	직업정보 제공 인터넷 사이트	.764			
	경력단절여성 창업교육 및 지원	.755			
	구인(채용) 정보처	.699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제도	.610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직종	.587			
	관심 직업의 인력수요 및 현황	.566			
	관심 직업의 미래전망	.559			
자격요건 정보	필요한 자격면허		.798		
	관련 직업훈련기관		.691		
	관련 자격증 종류 및 취득방법		.682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660		
	적합한 직업훈련		.631		
	관련 경력 및 일 경험		.595		
기업 근로조건 정보	관심 기업의 근로시간			.822	
	관심 기업의 임금수준			.763	
	관심 기업의 복리후생			.742	
	관심 기업의 고용형태			.740	
직무관련 정보	관심 직업의 업무장단점				.824
	관심 직업의 업무내용				.777
	관심 직업의 업무환경				.693
Eigen-value		9.728	1.937	1.384	.991
설명분산(%)		46.326	9.244	6.591	4.719
누적분산(%)		46.326	55.550	62.140	66.859
Cronbach's α		.888	.898	.896	.796

주.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순으로 제시함.

났다. 각 정보격차요인들의 개별 영향력에 대한 유의도 검증 결과,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 전략, 제도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이 직업정보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보격차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명	설문문항	성분				
		1	2	3	4	5
인터넷 정보능력	인터넷 정보탐색 방법 이해	.888				
	인터넷 정보소재 파악	.860				
	인터넷 수집정보 검토	.842				
	수집한 정보의 유용성	.833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조작	.829				
	인터넷 정보수집 의지	.824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사용	.771				
정보추구욕구	직업선택 및 취업관련 자료에 관심		.844			
	직업목표달성에 유용한 정보 추구		.831			
	선택한 직업에 대한 의견 추구		.811			
	참고할만한 사례에 관심		.761			
	직업확신을 위한 정보추구		.743			
	영향을 주는 다양한 직업정보 추구		.665			
	직업관련 상황진개에 대한 관심		.614			
	직업에 대한 조건과 지침에 관심		.562			
정보처리전략	흥미로운 직업정보 추이주목			.739		
	알게 된 직업정보 숙고			.710		
	알게 된 직업정보 추가탐색			.676		
	알게 된 직업정보 재해석			.675		
	알게 된 직업정보 의견교환			.620		
	부족한 직업정보 추가 탐색			.591		
	알게 된 직업정보 사실 확인			.563		
	상관없는 직업정보도 탐색			-.455		
개인적 네트워크	친구 및 선후배				.775	
	가족 및 친척				.695	
	기타 지인				.691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 직원				.665	
	전 일자리 지인				.632	
	교사, 교수, 스승				.615	
제도적 네트워크	민간직업훈련기관 직원					.786
	공공취업지원기관 직원					.738
	민간취업지원기관 직원					.687
	여성사회교육기관 직원					.684
	Eigen-value	9.651	3.691	3.467	1.766	1.698
	설명분산(%)	29.247	11.185	10.507	5.350	5.145
	누적분산(%)	29.247	40.432	50.939	56.289	61.434
	Cronbach's α	.942	.907	.728	.810	.749

주. 요인 부하량이 높은 문항의 순으로 제시함.

표 4.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요인명	1	2	3	4	5	6	7	8	9
1. 정보추구욕구									
2. 정보처리전략	.61**								
3. 개인적 네트워크	.16**	.30**							
4. 제도적 네트워크	.09	.21**	.38**						
5. 인터넷 정보능력	.38**	.40**	.18**	.09					
6. 직무관련 정보	.35**	.39**	.19**	.07	.29**				
7. 자격요건 정보	.39**	.43**	.19**	.15**	.41**	.63**			
8. 기업근로조건 정보	.21**	.25**	.17**	.17**	.30**	.48**	.64**		
9. 노동시장 정보	.36**	.37**	.21**	.27**	.51**	.42**	.65**	.63**	
M	4.04	3.64	2.81	2.77	3.52	3.69	3.72	3.24	3.16
SD	.64	.65	.77	.81	.96	.68	.72	.85	.96

* $p < .05$, ** $p < .01$

표 5. 정보격차요인들의 직업정보인지도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값	유의확률	공차한계	VIF
정보추구욕구	.054	.146	2.615	.009**	.595	1.681
정보처리전략	.056	.179	3.061	.002**	.543	1.841
개인적 네트워크	.039	.059	1.207	.228	.792	1.262
제도적 네트워크	.036	.102	2.174	.030*	.842	1.188
인터넷 정보능력	.031	.309	6.415	.000***	.802	1.247

$R = .559$, $R^2 = .312$, 수정된 $R^2 = .303$,
 $F = 33.500$, $p = 0.000$, Durbin-Watson = 1.690

* $p < .05$, ** $p < .01$, *** $p < .001$

로 나타났는데, 그 순위는 인터넷 정보능력($\beta = .309$, $p < .001$), 정보처리전략($\beta = .179$, $p < .01$), 정보추구욕구($\beta = .146$, $p < .01$), 제도적 네트워크($\beta = .102$,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적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를

표 6-1. 인구통계학적 특성 범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 분석

종속/독립	연령(age)						학력(education)						월가소득(monthly income)					
	구분	N	M	SD	F	구분	N	M	SD	F	구분	N	M	SD	F			
정보추구욕구	20대	23	3.97	.72	2.38	중졸이하	17	4.11	.62	3.52** b<d	100만원미만	36	3.99	.67				
	30대	79	4.11	.58		고졸	100	3.88	.63		100-300만원	131	3.95	.68				
	40대	181	4.04	.62		전문대졸	66	3.93	.54		300-500만원	147	4.12	.58				
	50대	84	3.97	.64		대졸	168	4.15	.64		500-700만원	42	4.07	.60				
	60대	8	3.53	1.03		대학원졸	24	4.15	.74		700만원이상	19	3.98	.77				
	20대	23	3.69	.75		중졸이하	17	4.05	.61		100만원미만	36	3.62	.68				
정보처리능력	30대	79	3.68	.70	고졸	100	3.52	.65	100-300만원	131	3.63	.67						
	40대	181	3.66	.57	전문대졸	66	3.59	.51	300-500만원	147	3.66	.64						
	50대	84	3.56	.65	대졸	168	3.66	.65	500-700만원	42	3.66	.57						
	60대	8	3.65	1.06	대학원졸	24	3.93	.60	700만원이상	19	3.62	.51						
	20대	23	2.64	.95	중졸이하	17	3.14	1.15	100만원미만	36	2.63	.86						
	30대	79	2.76	.80	고졸	100	2.74	.81	100-300만원	131	2.76	.86						
개인적 네트워크	40대	181	2.86	.73	전문대졸	66	2.84	.69	300-500만원	147	2.93	.67						
	50대	84	2.80	.71	대졸	168	2.77	.73	500-700만원	42	2.67	.70						
	60대	8	3.02	1.15	대학원졸	24	3.09	.60	700만원이상	19	2.93	.58						
	20대	23	2.40	.97	중졸이하	17	3.11	.78	100만원미만	36	2.45	.83						
	30대	79	2.71	.84	고졸	100	2.76	.88	100-300만원	131	2.88	.87						
	40대	181	2.86	.74	전문대졸	66	2.77	.78	300-500만원	147	2.79	.75						
체도적 네트워크	50대	84	2.70	.77	대졸	168	2.72	.80	500-700만원	42	2.60	.73						
	60대	8	2.93	1.36	대학원졸	24	2.85	.62	700만원이상	19	2.72	.73						
	20대	23	3.81	1.06	중졸이하	17	2.98	1.22	100만원미만	36	3.11	1.08						
	30대	79	3.84	.76	고졸	100	2.97	1.06	100-300만원	131	3.35	1.04						
	40대	181	3.59	.81	전문대졸	66	3.68	.76	300-500만원	147	3.64	.86						
	50대	84	3.02	1.13	대졸	168	3.76	.79	500-700만원	42	3.84	.71						
60대	8	2.94	1.32	대학원졸	24	3.94	.87	700만원이상	19	3.71	.95							

*p<.05, **p<.01

표 6-2.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 분석

종속/독립	총경력기간(achyff)					경력단절기간(achyff)					취업준비기간(achyff)				
	구분	N	M	SD	F	구분	N	M	SD	F	구분	N	M	SD	F
정보추구욕구	1년미만	36	3.84	.75		1년미만	119	4.08	.58		3개월미만	143	4.04	.56	
	1-5년	126	3.98	.65		1-5년	84	3.92	.67		3-6개월미만	80	4.10	.64	
	5-10년	106	4.09	.62	2.32	5-10년	69	4.08	.60	1.47	6-1년미만	91	4.05	.59	3.05*
	10-15년	86	4.16	.56		10-15년	51	4.15	.66		1-2년미만	32	4.14	.64	b>e
	15년이상	21	3.92	.64		15년이상	52	3.97	.70		2년이상	29	3.65	.96	
정보처리전략	1년미만	36	3.58	.84		1년미만	119	3.68	.61		3개월미만	143	3.68	.62	
	1-5년	126	3.58	.64		1-5년	84	3.60	.68		3-6개월미만	80	3.65	.63	
	5-10년	106	3.66	.61	1.19	5-10년	69	3.66	.58	.40	6-1년미만	91	3.60	.58	1.43
	10-15년	86	3.76	.56		10-15년	51	3.67	.69		1-2년미만	32	3.78	.62	
	15년이상	21	3.54	.71		15년이상	52	3.56	.69		2년이상	29	3.42	.88	
개인적 네트워크	1년미만	36	2.57	.80		1년미만	119	2.88	.72		3개월미만	143	2.78	.80	
	1-5년	126	2.77	.75		1-5년	84	2.81	.80		3-6개월미만	80	3.05	.66	
	5-10년	106	2.93	.72	1.63	5-10년	69	2.77	.79	.83	6-1년미만	91	2.71	.73	2.97*
	10-15년	86	2.84	.83		10-15년	51	2.87	.80		1-2년미만	32	2.85	.86	
	15년이상	21	2.81	.65		15년이상	52	2.66	.73		2년이상	29	2.62	.75	
제도적 네트워크	1년미만	36	2.75	.67		1년미만	119	2.65	.87		3개월미만	143	2.69	.86	
	1-5년	126	2.76	.78		1-5년	84	2.81	.77		3-6개월미만	80	2.84	.80	
	5-10년	106	2.83	.75	.33	5-10년	69	2.78	.76	.87	6-1년미만	91	2.80	.75	1.01
	10-15년	86	2.72	.91		10-15년	51	2.83	.79		1-2년미만	32	2.92	.65	
	15년이상	21	2.65	1.04		15년이상	52	2.85	.79		2년이상	29	2.65	.87	
인터넷 정보능력	1년미만	36	3.43	.94		1년미만	119	3.52	1.01		3개월미만	143	3.44	1.01	
	1-5년	126	3.41	.93		1-5년	84	3.57	.99		3-6개월미만	80	3.62	.76	
	5-10년	106	3.72	.90	4.46**	5-10년	69	3.67	.85	2.22	6-1년미만	91	3.58	.94	1.24
	10-15년	86	3.61	.98	c, d>e	10-15년	51	3.54	.91		1-2년미만	32	3.63	1.06	
	15년이상	21	2.86	1.00		15년이상	52	3.17	.92		2년이상	29	3.25	1.09	

*p<.05, **p<.01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1, 표 6-2와 같다.

연령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터넷 정보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10.25, p<.01$). 사후검증 결과 20대, 30대, 40대 집단과 50대 집단 간 인터넷 정보능력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대($M=3.02$)보다 20대($M=3.81$), 30대($M=3.84$), 40대($M=3.59$) 집단의 인터넷 정보능력 평균이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보추구욕구($F=3.52, p<.01$), 정보처리전략($F=3.77, p<.01$), 인터넷 정보능력($F=15.86,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증 결과 정보추구욕구의 경우 고졸 집단과 대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 집단($M=4.15$)이 고졸 집단($M=3.88$)보다 정보추구욕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전략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 정보능력은 사후검증 결과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집단과 대졸, 대학원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졸, 대학원졸 집단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집단보다 인터넷정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계소득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제도적 네트워크($F=2.59, p<.05$)와 인터넷 정보능력($F=4.72,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도적 네트워크는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넷정보능력은 사후검증에서 100만원 미만 집단과 500-700만원 미만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500-700만원 미만 집단($M=3.84$)이 100만원 미만 집단

($M=3.11$)보다 인터넷 정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경력기간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정보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46, p<.01$). 사후검증에서는 5-10년 미만, 10-15년 미만의 집단과 15년 이상 집단 간 차이를 보였는데, 5-10년, 10-15년 미만의 집단이 15년 이상 집단보다 인터넷 정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기간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정보추구욕구($F=3.05, p<.05$)와 개인적 네트워크($F=2.97,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욕구는 사후검증에서 3-6개월 미만 집단과 2년 이상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3-6개월 미만 집단이 2년 이상 집단보다 정보추구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적 네트워크는 사후검증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노동시장에서 잠재인력에 머물러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욕구 또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정보 부족과 지원시스템의 미비로 인하여 재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직업정보는 합리적인 직업 선택과 진로설계를 도우며 직업획득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직업정보인지도 증진에 필요한 시사점을 찾고, 경력단절여성 간 직업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 소재한 여성취업지원 관련 기관 11곳을 방문한 경력단절여성 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격차요인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정보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처리전략, 정보추구욕구, 제도적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네트워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정보능력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에 대한 태도가 인지적 정보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동우(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구직자가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활용한다는 박선희(2004)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유·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집능력(IT이용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직업정보를 습득하여 인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능력개발기관들이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를 기반으로 IT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직업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모바일 웹서비스, 페이스북, 밴드와 같은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특화된 직업정

보 콘텐츠를 보다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직업정보인지도 증진에 효과적인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처리전략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정보처리전략이 인지적 정보에 영향을 미치고(이동우, 2002), 정보처리전략에 따라 지식 습득 및 정보 보유량에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Kosicki, McLeod, & Amor, 1988)를 지지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다양한 직업정보를 수용함에 있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채택하는 전략이 직업정보인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지적 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ing)이론에서도 진로선택 과정을 정보처리 과정으로 간주하고, 인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인간의 사고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Peterson, Sampson, & Reardon; 1991).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유효화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전략을 강화해주는 상담개입이 직업정보인지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보추구욕구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정보추구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인지적 정보 수준이 높고, 정보에 대한 동기화의 정도가 개인의 지식수준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들(박정은, 1997; 이동우, 2002; Katzman, 1972; Lovrich & Pierce, 1984)을 지지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지적으로 불확실한 직업정보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직업정보인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직업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능동적으로 직업정보탐색 활

등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정보마인드 고취 교육과 상담개입이 직업정보인지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도적 네트워크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정보수용자의 사회적 접촉이 정보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동우, 2002; Galloway, 1977)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유대관계 연결망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 역할을 담당한다는 연구 결과(조운성, 홍아정, 2012)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직업을 획득하는 데 있어 자원과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며(이경상, 2001; Ancona & Caldwell, 1992),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해준다(장서영, 2008b). 제도적 네트워크는 공공 취업정보센터, 여성사회교육기관, 민간직업훈련기관 등 제도권 내의 직원들과의 인적 관계망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제한적이고 협소한 인적 네트워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관계망이다.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들은 섬처럼 홀어져 있는 특징이 있어, 이러한 고립이 경력단절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한다(장서영, 장원섭, 안선영, 서영주, 이정섭, 2006).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필요한 직업정보를 제도적 네트워크를 통해 습득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재취업에 성공한 선배들과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취업 스터디나 동아리 지원, 취업 희망분야별 네트워크 활성화, 기업설명회나 취업박람회를 통한 구인업체 담당자와의 교류 촉진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에 따라 인터넷 정보능력이 차이를 보였는데, 50대보다 20대, 30대, 40대 집단의 인터넷 정보능력이 높았다. 장년층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에서 정보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직장에서도 IT기기를 매개로한 업무를 담당할 기회가 적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터넷 정보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50대의 장년층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특화된 인터넷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력에 따라 정보추구욕구, 인터넷 정보능력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정보추구욕구의 경우 대졸 집단에 비해 고졸 집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집단의 정보추구욕구가 낮은 것은 대졸 집단에 비해 구직욕구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학력에 따른 구직욕구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고졸이하의 구직자가 대졸 이상의 구직자보다 구직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김경민, 2015). 따라서 정보추구욕구가 낮은 고졸 경력단절여성들의 구직욕구를 증진시키고, 직업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여 정보추구 욕구를 증진시키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월가계소득에 따라 인터넷 정보능력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정보능력의 경우 100만원 이하 집단보다 500-700만원 미만 집단의 인터넷 정보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2008)에서도 소득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에 있어 100만원 미만이 32.7%, 400만원 이상은 99.0%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보기기나 정보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경제력이 낮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비용을 지불한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능력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저소득층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상담지원 및 정보화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취업배경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총경력기간에 따라 인터넷 정보능력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15년 미만 집단에 비해 15년 이상 집단의 인터넷 정보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해볼 수는 없지만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대부분 중장년층에 해당할 것이고, 앞서 논의한 바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 활용 정도가 낮아지기에 인터넷 정보능력이 낮은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직업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경력단절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정보능력 향상 프로그램과 상담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취업준비기간에 따라 정보추구욕구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추구욕구의 경우 2년 이상의 집단이 3-6개월 미만 집단에 비해 정보추구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구직준비특성이 낮다는 연구결과(김경민, 2015)에 비추어, 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을 단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정보추구 욕구가 낮은 것이라 이해된다. 따라서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된 2년 이상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정보의 중

요성을 고취하고 직업정보 수집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상담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제도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간 직업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검증된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제도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특히 본 연구를 통해 직업정보인지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인터넷 정보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직업정보인지도를 증진하기 위한 상담개입과 교육프로그램이 주요할 것이다.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취업배경 변인에 따른 정보격차요인에 있어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연령, 학력, 월가계소득, 총경력기간, 취업준비기간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상담개입과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표집이 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수강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연령 및 학력 층의 표본이 고르게 표집 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

과의 일반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표집의 다양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정보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사회적 네트워크, 인터넷 정보능력을 채택하여 사용하였는데,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에서 정보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 요인들과 더불어 개인의 동기 및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과 직업정보인지도와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보격차 요인들의 하위요인들, 즉 정보추구욕구의 네 가지 하위차원(환경감시적 욕구, 안내적 욕구, 수행적 욕구, 강화적 욕구)과 정보처리전략의 세 가지 하위차원(피상적 검색, 능동적 정보처리, 숙고에 의한 통합), 인터넷 정보능력의 두 가지 하위차원(정보수집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보다 풍부하게 구성하여 하위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구직자들의 직업정보인지도 증진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일반 성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비교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진로 및 직업상담 현장에서 성별차이에 따라 그 특성에 적합한 상담 개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 연구와 문헌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정보추구욕구, 정보처리전략, 인터넷 정보능력과 같은 정보격차 요인의 경우 커뮤니케이션학에서 논의되는 개념을 상담분야에 차

용하여 직업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연구절차상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지만 향후 보다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개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연구들이 보다 풍부해지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고삼석 (2011).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서울: 나담, 53-139.

곽혜정 (2011). 실업자의 직업정보인지 수준이 구직행동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민 (2015). 심리적 구직준비특성이 구직욕구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문조, 김종길 (2002).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이론적·정책적 제고. 한국사회학, 34(4), 123-155.

김병숙 (2007). 직업정보론(제2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김병숙, 전종남 (2004). 진로상담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유형 및 직업정보인지도에 미치는 영향. 일반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17(1), 20-38.

김종향 (2011). 사회적 관계망 요인이 고령자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 임상사회사업연구, 8(2), 47-70.

박가열 (2003).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 개발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박선희 (2004). 직업정보매체별 실업자의 직업정

- 보인지도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은 (1997). 컴퓨터 리터러시 수준 격차의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의 정보추구동기화와 동료 집단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주 (2010). 잠재성장 모형을 이용한 대학생의 직업정보인지도에 관한 종단 분석. *교육심리연구*, 29(2), 289-303.
- 서진완 (2000).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의 개념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정보화수준 측정. *한국행정학보*, 34(1), 309- 325.
- 심재철, 정윤식, 유종원, 이의정, 권혁남, 박성연, 박용서 (1998). 미디어 이미지와 정보처리전략에 따른 지식습득: 지방자치제와 환경이슈 지식격차에 대한 4개 도시 비교 연구. *언론과사회*, 20호, 44-71.
- 여성가족부 (201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10~14). 여성가족부.
- 오은진, 박성정, 민현주, 김난주, 송창용, 김지현 (20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육구조사연구. 여성부.
- 윤희경 (2008).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진로 탐색 경험 분석: 직업교육 프로그램 중장년 참여자를 중심으로. *평생교육학연구*, 14(1), 83-112.
- 이경상 (2001). 취업시장에서의 개인적 연결망의 특성과 직업성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우 (2002). 정보격차의 발생변인 연구: 정보격차의 인지적 측면과 활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규 (2009). 정보 격차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수준에서 개인 수준의 논의로. *한국언론학보*, 53(6), 6-25.
- 이효남 (2002). 국내외 컴퓨터 보조 직업지도 시스템(Computer-Assisted Career Guidance System)에 관한 분석. *고용동향분석*, 141-166.
- 임은미, 장선숙 (2004). 인터넷 활용 진로정보 탐색 프로그램의 즉시적 효과와 지속적 효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8(4), 139-154.
- 장서영 (2008a).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교육의 개선방향. *e-고용이슈*, 11(2), 40-51.
- 장서영 (2008b).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질적 연구. *여성연구*, 74(1), 79-104.
- 장서영, 은혜경, 오민홍 (2009).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유망직업 선정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2(1), 163-187.
- 장서영, 장원섭, 안선영, 서영주, 이정섭 (2006).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고학력 경력차단 여성의 직업기초능력 프로그램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장지현, 김민영, 장원섭 (2010). 경력단절여성의 구직경로가 성공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영향: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78(1), 31-76.
- 정숙경 (2003). 기혼여성의 인터넷 이용과 정보 불평등: '차별'과 '배제'. *한국여성학*, 19(2), 177-208.
- 조윤성, 홍아정 (2012).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연결망이 경력계획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업능력개발연구*, 15(3), 77-101.
- 황여정 (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Ancona, D. H., & Caldwell, D. F. (1992).

- Bridging the boundary: External activity and performance in organizational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7(4), 634-665.
- Atkin, C. K., Galloway, J., & Nayman, O. B. (1976). News Media Exposure, Political Knowledge and Campaign Interest. *Journal Quarterly*, 53(2), 231-237.
- Bodden, J. (1970). Cognitive complexity as a factor of appropriate vocational choic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17(4), 364-368.
- Breaugh, J., & Mann, R. (1984). Recruiting Source Effects: A Test of Two Alternative Explanation, *Journal of Psychology*, 57(4), 261-267.
- Fredin, E. S., Monnett, T. H. & Kosicki, G. M. (1994). Knowledge gaps, social locators, and media schemata: gaps reverse gaps, and gaps of disaffec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1(1) 176-190.
- Galloway, J. J. (1977). The Analysis and Significance of Communication Effects Gaps. *Communication Research*, 4(4), 363-386.
- Haase, A., Reed, C., Winer, J., & Bodden, J. (1979). Effect of positive, negative, and mixed occupational information on cognitive and affective complex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5(3), 294-302.
- Hanson, S., & Pratt, G. (1991). Job Search and the Occupational Segregation of Wome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229-253.
- Hasan BOZGEYĞKİÇİ, & Hüseyin DOĞAN (2010). The effect of computer assisted career group guidance on the self-efficacy level of career decision making in studen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2), 77-86.
- Katzman, N. (1972). The impact of communication technology: Promises and prosp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24(4), 47-58.
- Kosicki, G. M., McLeod, J. M., & Amor, D. L. (1988). *Processing strategies for mass media information: Selecting, intergrating and making sense of political news*. Voting and Media Division of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Chicago: Paper presented Elections, 26-30.
- Lee, S. H., & Brinton, M. C. (1996). Elite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The Case of South Korea. *Sociology of Education*, 69(3), 177-192.
- Lovrich, N., & J. Pierce. (1984). Knowledge gap Phenomena: Effects of Situation-Specific and Transsituational Factors. *Communication Research*, 11(3), 415-434.
- McLeod, D. M., & E. M. Perse. (1994).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on public affairs knowledge. *Journalism Quarterly*, 71(2), 433-442.
- Osborn, D., & LoFrisco, B. (2012). How do career center use Social Networking Sit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60(3), 263-272.
-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1991). *Career development service: A cognitive approach*. Pacific Grove, CA: Books/Cole.
- Remenyi, A., & Fraser, B. (1977). Effects of occupational information on occupational percep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0(1), 53-68.
- Shim, J. C. (1997). The metacognitive approach in

- masscommunication studies.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14, 81-120.
- Stigler, G. J. (1961).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9(3), 213-225.
- Tichenor, P. T., Donohue, G. A., &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of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1), 159-170.

1차원고접수 : 2015. 04. 25.

심사통과접수 : 2015. 12. 14.

최종원고접수 : 2015. 12. 23.

An exploratory study on effecting factors of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by career-interrupted women: focus on information gap factors

Kyungok Sung

Korea EAP Association

Hyeyoung Kang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This study aims at confirming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of women whose careers have been interrupted and getting the implications for the way to improve their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that is important to reemployment. This study examine whether various factors that precedent studies show can cause individual information gap such as desire for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 social network, internet information literac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Research subjects are 375 career-interrupted women and participated through 11 institutes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for women. Research tool is questionnaires that measure th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information gap factors. Researcher constructed them in reference of information gap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research tool were verified each by factor analysis and interitem consistenc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th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was 30.3% explained by the information gap factors. The regression mod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F=33.500, p<.001$). In terms of the influence of individual information gap factors, th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was most affected by internet information literacy($\beta=.309, p<.001$), followed by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y($\beta=.179, p<.01$), desire for information seeking($\beta=.146, p<.01$) and institutional network($\beta=.102, p<.05$).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network do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And by analyzing difference of information gap factors from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d employment background variables, it showed difference according to age, level of education, income, period of work experience and preparation period for employment. As a result, it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 to enhance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 by career-interrupted women and suggested implication to reduce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gap among career-interrupted women.

Key words : career-interrupted women, information gap factors, cognitive level of occupational information